2008 새해설계 ③

포천예총 회장 이희용

청소년대상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개발 적극 노력

포천의 진정한 정체성을 예술작품으로 제작 발표해야

"회원 단체간의 화합을 많이 개선시켰으며 정례적인 이사회를 개최해 임원들간의 논의를 자주 실시했다. 모든 집행(예술행정)에 관한 사항을 개방, 모든 회원 단체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예총의 전 회원이 화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문화원, 유림, 예술인동우회 등 유관단체와의 관계를 이전보다 상당부분 돈독하게 했다."

2007년3월10일 포천예총(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포천시지부) 회장으로 취임해 그동안 이룩한 성과에 대해 이희용(사진 · 43)회장이 밝힌 내용이다.

이 회장은 올해 추진 사업으로 청소년을 위한 예술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며 예총의 전회원 단체장과의 논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소년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이유는 청소년들이나 자라나는 후세들에 대한 예술문화교육이 절실히 필요하고 가능성과 능력 개선을 위한 일들을 찾아내어 교육프로그램으로 만들어냄으로써 포천예술문화의 미래를 위한 준비작업을 하는 해로 만들어나가는데 준비하는 해로 삼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업으로 공연예술단체가 함께 준비하는 프로그램으로 공연의 주제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포천의 명현과 정신을 형상화하는 작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마홀예술제를 포천예술제로 명칭을 바꿔 예총 전 회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행사를 만들어서 건전한 예술제로,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같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시민들에게 당부사항에 대해 이 회장은 "공연이나 전시를 관람하기 위한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제대로 안되고 직접적으로 시민들에게 인식을 못 시켜줌으로써 관람횟수가 적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올해부터 예총에서는 연말에 공연이나 전시 관련 팜프렛(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가져오시는 시민을 포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천시에 부탁하고 싶은 사항에 대해 이 회장은 "예술작품의 수준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것으로 제작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지원보다는 우리지역을 살릴 수 있는 곳에 집중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며 "무조건 안된다고 하는 패배주의적인 생각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진취적인 생각으로 전환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투자의 개념으로 지원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이 회장은 현재 포천시가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예술작품들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포천의 예술인들보다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외부인사의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원한다면 문화사대주의로 밖에는 평가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이것을 진심으로 생각해서 좋은 지원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포천신문에 바라는 사항에 대해 이 회장은 "예술관련 행사와 예술가들에 대한 홍보를 좀더 확대해 주었으면 좋겠다"며 "문화예술면은 문화예술인들이 주인될 수 있도록 판을 넓게 펼쳐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또 "진정으로 포천의 정신을 살릴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예술작품으로 제작해서 시민이나 전국에 보여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며 "매체적인 역할을 방치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자각하고 이제는 우리도 포천의 진정한 정체성을 예술작품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정신을 가졌으면 하는 바램"을 강조했다.

포천예총이 2008년 한 해동안 펼칠 사업계획은 다음과 같다.

□포천예총 ▶제2회 포천예술제 ▶제9호 포천예술발간 □포천무용협회 ▶늘 푸른 어린이무용단 공연 ▶제17회 전국무용제 참가 ▶포천시민을 위한 전통무용의 향연 ▶포천예술제(창립4주년 공연) □포천문인협회 ▶제5회 포천문예대학 ▶제7회 포천사랑 백일장대회 ▶제10회 포천사랑 시낭송대회 ▶포천예술제(포천문학 제10집 출판기념회 및 시화전) □포천국악협회 ▶포천예술제 및 제7회 시민과 함께하는 국악한마당 □포천연극협회 ▶제26회 전국연극제 경기도대회 ▶제17회 경기도아마추어연극대회 참가 ▶제6회 포천청소년연극제 ▶제14회 어린이연극제 ▶포천예술제(제10회 포천연극제) □포천미술협회 ▶제5회 현대미술제 ▶제5회 산자수명 포천실기대회 ▶제3회 자연+사람+미술의 어울림전 ▶포천예술제(제10회 정기회원전)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韓國의 선비정신 · 91

우리나라 최초의 야담집 어우야담(於于野譚)을 저술하고 불사이군(不事二君)한 유몽인

리효종
포천한시사 대표

유몽인(柳夢寅) : 1559년(명종 14) ~ 1623년(인조 1)

본관은 흥양(興陽). 사간(司諫) 충관(忠寬)의 손자. 당(?)의 아들. 자는 응문(應文). 호는 어우당(於于堂). 우계 성혼(成渾)의 문인.

1582년(선조 15)에 진사가 되고 1589년(숙종 15) 증광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한 문장에 뛰어난 학자이었다.

문학(文學)을 거쳐 황해도 관찰사를 역임하고 광해조때 좌승지, 도승지, 예조참판, 이조참판에 이르렀다.

광해군은 외교에는 뛰어났지만 내치(內治)에 서툴렀다. 당파를 초월해 각 파의 당론을 조절해야 했지만 그렇지 못하고 대북(大北)파의 정인홍(鄭仁弘), 이이첨(李爾瞻)등이 주도하는 정치노선에 편중, 국내정치를 그르쳤으며, 인목대비(仁穆大妃) 폐위론에 까지 이르렀다.

서인(西人)과 남인(南人)은 극력 반대했고, 북인 중에서도 기자헌(奇自獻). 정온(鄭蘊)등이 반대해 대북만이 찬성했다. 그러나 광해군과 대북파인 정인홍과 이이첨은 다른 정파를 모두 축출하고 1618년(광해군 10) 인목대비의 폐비를 강행했다. 이때 유몽인은 광해군 노선에 가담하지 않고 반대했다. 따라서 파직되어 산중에 은거했다.

1623년(광해군 15)에 인조반정(仁祖反正)이 일어나자 벼슬을 구하려는 자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었다.

유몽인은 광해군 정권에서 쫓겨났으니 새 정부에 참여하라고 권유했으나 그는 참여하지 않았다. 신하된 도리로서 어찌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

중국 상고시대 은나라 주왕(紂王)이 포악무도하여 주무왕(周武王)이 만백성을 구하고자 주왕을 정벌하자 백이(伯夷)와 숙제(叔齊)가 이신군벌(以臣君伐)은 아니된다고 간하였으나 주무왕이 듣지 않자 주나라의 곡식 먹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수양산(首陽山)에 숨어 살다가 굶어 죽었다.

조선조 세조(世祖)때 단종(端宗)을 지키려는 충신 수 백명이 죽었다. 이것이 선비정신이다.

유몽인이 반정된 새 조정에 참여하지 않으니 광해군 복위운동을 한다고 하여 처형되었다. 유몽인은 불사이군(不事二君)을 하였다하여 처형된 것이다.

오늘날 우리 정치판을 보자. 개인의 욕망을 위해서는 장관을 시켜주고, 국회의원을 시켜주고, 시장을 시켜준 당을 배신하는 행위, 집권자에게 선을 대려는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같은 철새 정치인들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우리 조선왕조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519년의 사직을 보존하고 세계에 빛나는 문화유산을 남긴 것은 우리의 선비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유몽인은 조선중기의 설화문학(說話文學)의 대가로서 우리나라 최초의 야담집인 어우야담(於于野譚)을 지었으며 전서(篆書), 예서(隸書), 해서(楷書), 초서(草書)에 모두 뛰어났다.

조선조 문화중흥의 군주인 정조(正祖)때 신원되고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흥양(興陽)의 운곡사(雲谷祠), 고산(高山)의 삼현영당(三賢影堂)에 제향되고 시호는 의정(義貞)이다.

뮤지컬 이야기 #41

'홀리데이 인(Holiday Inn)', 뮤지컬 영화에서 호텔 체인까지

미국에서는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예술인들이 은퇴 후에 전원생활을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었다. 할리우드에서 만들어진 백스테이지 뮤지컬이나 영화를 보면 어김없이 전원생활을 하는 은퇴한 예술가들이 나온다. 이들은 화려했던 시절에 대한 추억을 되새기며 조용히 텃밭을 가꾸거나 농장을 경영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데 뮤지컬 영화 〈양키 두들 댄디〉에서 조지 M 코핸 부부는 전원생활을 하며 농장을 관리하고 있고 영화 〈홀리데이 인(Holiday Inn)〉에서도 주인공 빙 크로스비가 전원생활을 하며 호텔을 경영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비단 영화 속에서만이 아니라 실제로 스타들이 시골에서 농장을 가꾸거나 조용히 만년을 보낸 사례가 너무나도 많다.

〈홀리데이 인(Holiday Inn)〉은 바로 이러한 전원생활을 꿈꾸는 한 배우에 관한 뮤지컬인데 이 영화가 1942년에 개봉되자 관객은 물밀듯이 극장으로 밀려들었고 역대 최고의 흥행 뮤지컬 영화로 기록되었다. 매력적인 소재뿐만 아니라 특히 빙 크로스비(Bing Crosby)가 영화 속에서 부른 캐롤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1942년 10월 음악차트에 1위로 오르며 11주 동안 그 자리를 지킨 노래가 되었고 21세기인 지금도 널리 애창되고 있는 명곡이다. 이 음악은 처음에 RKO 영화사의 1935년 뮤지컬 영화 〈탑 햇(Top Hat)〉에서 사용될 예정이었지만 감독에 의해 다음 영화로 미뤄졌고 이후 작곡가 어빙 벌린이 파라마운트 영화사와 계약을 맺게 되어 결국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운명처럼 파라마운트 영화사의 커다란 자산이 되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의 감미로운 가락과 함께 전원의 한 호텔에서 시골음식을 먹으며 공연을 관람하고 하룻밤을 보낸다는 설정은 상당히 매력적이다. 오늘날 이와 비슷한 패키지가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시도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장소가 시골이 아닌 서울이긴 하지만 뮤지컬 영화 〈홀리데이 인(Holiday Inn)〉의 독창성이 21세기에도 빛을 발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홀리데이 인(Holiday Inn)〉은 다소 감상적인 플롯을 지니고 있지만 뮤지컬 코미디적인 요소와 스타들의 열연 그리고 매력적인 장소 설정으로 인해 인기가 있었다. 현재 미국에서는 네트워크 방송이나 케이블에서 그렇게 자주 상영되지는 않는다. 작품의 완성도나 노래의 인기도 면에서 볼 때 의외의 상황이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극중 뮤지컬 넘버인 '아브라함 링컨'에 기인한다. 주인공인 빙 크로스비와 마조리 레이놀즈가 얼굴에 검은 칠을 하고 공연하는 장면들이 인종주의적인 면에서 편견과 인종차별을 연상시킨다는 논란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네트워크 텔레비전이나 케이블 TV에서는 그 장면만을 삭제하고 방영하기도 했다. 영화의 줄거리는 단순하다. 조용히 시골로 낙향하여 조그마한 호텔을 경영하려고 하는 남자 주인공과 화려한 할리우드로 진출하려는 여주인공은 결국 결별하게 되지만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다시 재회하고 함께 조용히 전원생활을 한다는 내용이다. 비록 공휴일에만 공연을 하는 호텔이지만 도시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하루의 휴식을 주는 영화 속 호텔 이름인 '홀리데이 인'은 10년 후 실제로 대중적인 호텔 브랜드로 자리 잡는데 커다란 영감을 주게 된다. 1951년에 가족과 함께 여행하던 중 어린아이들을 싫어하는 모텔에 불만을 느낀 케몬스 윌슨(Kemmons Wilson)은 1952년에 가격이 저렴하고 깨끗한 모텔이란 컨셉을 갖고 호텔사업을 시작하여 미국 전역에 표준이 된 모텔 "홀리데이 인"을 세웠다. 불과 몇 년 만에 호텔업계의 중추적인 기업으로 자리 잡게 된 "홀리데이 인"은 가격과 서비스 면에서 경쟁력을 갖춘 이유이기도 했지만 창업주 윌슨의 아이디어처럼 '홀리데이 인'이라는 영화 제목이 갖는 파워가 상당히 큰 것도 사실이었다. 그렇지만 현재 거대 호텔 체인인 "홀리데이 인"은 영화 속의 호텔 '홀리데이 인'과는 다르다. 단지 영화의 이름과 분위기만을 차용한 것으로 일반적인 호텔 체인점으로 중급호텔 시장을 겨냥한 기업이다. 지금은 일반화되어 있지만 수영장과 에어컨, 레스토랑 그리고 아이들은 무료라는 점을 내세워 그 당시로서는 가히 혁명적인 서비스를 제공했던 호텔 "홀리데이 인"은 현재 1,400여개의 체인을 둔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서울에 체인점이 있고 이름만 도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 호텔들도 있는데 세계적으로 최고급 호텔로 단장한 "홀리데이 인"도 생겨나고 있다.

주5일제 근무와 함께 휴일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주말농장과 주말공연을 위한 패키지 상품이 개발되고 있다. 아직은 아이디어와 투자가 미흡한 상태여서 휴일을 즐기려는 사람들을 만족시키지는 못하고 있는데 영화 〈홀리데이 인〉의 극중 호텔처럼 매력적인 모습을 볼 수 있을지 기대가 된다.

윤우영
(대진대 교수, 연출가)

예/술/칼/럼

아직도 숲은 미래(未來)다

예로부터 숲을 가꾸는 일이 풍수(風水)를 잘 다스리고 출중(出衆)한 인물을 길러내는 것과 같다하여 마을 어귀의 언덕이나 동구 밖 바람의 길에 나무를 심어가며 숲으로 가꾸었다. 숲은 집 앞의 텃밭이나 개천의 둑과 맞닿아 마을의 품에 뿌리를 내리고 살았다. 그러다 숲의 나무들은 한 여름동안 즐겨 입던 옷을 흙에 벗어 던져 토양의 밑거름으로 기꺼이 헌신(獻身)했으며 이듬해 어김없이 곡식이나 과일의 달콤한 물이 되어 주었다. 숲은 혼자 잘난 체 하지 않고 도둑과 바람의 문지기가 되어 마을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항상 손을 맞잡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었다. 그래서 숲이 울창한 마을에는 언제나 인심(人心)이 후덕(厚德)하고 이웃간에는 함박웃음과 따뜻한 골목을 만들어가며 정이 우거졌다.

이처럼 숲과 마을은 한 식구처럼 오손도손 바람과 살아왔다. 동트는 아침에서 해 걸음이 지기까지 사람의 고단한 숨소리와 시원한 나무 그림자가 다정히 걸었다.

지금도 마을의 길가나 교정(校庭)과 시민공원에는 주로 나무를 심어 깨끗한 산소를 얻기 위해 친환경적(親環境的) 공간을 조성하기도 한다. 이처럼 사람이 숲과 서로 주고받으며 순화로울 때 세상은 화목한 것이다. 이와 같이 숲은 마을과 합력(合力)하는 공동체였다.

여기에서 농경생활의 '두레'나 '품앗이'가 기원되지 않았나도 싶다. 바로 이것이 자연과 인간의 소통이다. 모든 예술의 이해 또한 자연현상의 자명한 질서를 깨닫는 탐구에서 시작된다.

그러므로 인간은 숲에서 배운 교훈으로 푸른 마음을 터득했으며 옳은 세상을 향한 높은 이상과 너그러운 품안을 배웠다. 또한 숲이 물을 가두었다가 서서히 뱉는 수리작용을 통하여 가뭄을 대비하는 지혜를 얻기도 했다. 이것이 순환(循環)의 원리이며 사람이 자연과 동력(同力)하는 순리(順理)다. 곧 '자연과 사람은 하나다'라는 의미가 새겨져 있다.

생각해 보면 일제 강점기(強占期)에는 일본이 '풍수설'을 근간으로 하여 한반도의 백두대간에 쇠못을 박고, 산맥의 정기(精氣)를 잘라 경부선의 철도노선을 그었다는 통설이 있기도 하다. 그것은 한민족의 피와 씨를 말리려는 계책(計策)이었지만 결국은 인간의 진리와 자유를 물어뜯는 역사의 미치광이가 되고 말았다.

이 역시 자연과 인간은 하나일수 밖에 없다는 엄연한 섭리에 대한 무모한 도전이었던 것이다.

그러면 오늘날 마을의 숲은 어떠한가?

숲은 마을을 떠나고 사람은 숲에서 쫓겨났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이별인가. 누구의 책임인가, 절박하다.

숲이 마을을 떠나면서 우수한 인재와 기후(氣候)마저도 마을에 등을 돌렸다. 누구의 잘못인가, 따져 묻기보다는 사람이 먼저 무릎이 닳도록 반성해야만 한다.

이제 마을을 떠난 숲은 다시 마을로 돌아와야 한다. 그리고 마을을 등졌던 인재들은 제 발로 걸어와 검은 속셈으로 물질만능을 부추기고 이웃과 정을 갈라놓는 권력과 명예만을 사냥할 것이 아니라, 반나절이라도 숲이 떠난 언덕과 개천에 삽질을 하고 작은 나뭇가지를 다독거리며 자신의 문패를 걸었으면 좋겠다.

외로우면 기억해 보라, 그을린 냄비에 푸성귀를 다져 넣고 침 삼키던 부뚜막과, 봄이 활짝 핀 날 꽃 사타구니를 빠는 나비의 등짝을 때려 하반신을 못 쓰게 한 개천의 개구쟁이 돌멩이들과, 일그러진 초승달 아래 두런거리며 쑥 태우던 연기를 떠올려 보라. 그 날에는 얼마나 철부지의 꿈이 컸던가….

가보자, 바람이 잠잠한 숲에는 산새와 들새가 날아와 춤을 추며 노래를 하고, 못질 안한 까치집에는 구름이 도란도란 모여앉아 아침을 기다려야 한다.

이것이 자연이 연출하는 최고의 예술이기도 하며 비로소 사람은 위대한 배우이자 관객이 되는 것이다. 물론 입장료는 없다. 마음으로 쓰는 편지일 뿐이다. 그리고 답장을 기다려서도 안된다.

안익수 시인
제3의문학 주간

수필가 김창종의 〈포천 이야기〉 (226)

「매실」과 「가로수」

한약의 기본 의학서에 보면 「본초강목」에서 매실의 효능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맛이 시고 무독하다」 「간과 담을 다스린다」 「세포를 튼튼히 하며 혈액을 정상으로 만든다」 「번열을 내리게 하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사지 통증을 멈추게 한다」 「내장의 열을 다스리고 갈증을 조절한다」 「토사 광란을 멈추게 하고 냉을 없애고 설사를 멈추게 한다」 「주독, 종기, 담을 없앤다」 「뱃속의 벌레를 없애며 물의 독과 물고기의 독을 없앤다」 「자궁의 피를 멈추게 하고 월경불순, 염증, 대하에 좋다」 「대변불통, 대변하혈, 피오줌을 낫게 한다」 「입안의 냄새를 없애며 가슴앓이와 배아픈 것을 다스리고 허증, 피로를 다스리며 폐와 장을 수렴한다」 「중풍과 경기를 다스린다」 고 쓰여있다.

옛부터 매실은 「매실은 삼독(三毒)을 없앤다」라는 말이 있어왔다. 여기서 3독이란, '음식의 독' '피속의 독' '물의 독'을 말한다. 즉, 독을 분해시키는 간의 역할을 상승시켜서 피곤하거나 술을 자주 마시는 사람에게 매우 좋다고 한다.

매실에는 「피크린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독성물질을 분해하는 역을 한다. 「식중독」 「배탈」치료 예방의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자세히 말하자면 음식물 중의 탄수화물은 분해되어 포도당으로 되고 해당 과정과 구연산회로를 거쳐 최종적으로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어 배설된다. 이때 산소가 부족하거나 구연산회로가 원활하지 않으면 피로의 원인 물질인 젖산이 몸에 축적된다. 젖산이 몸에 축적되게 되면 어깨 결림, 두통, 요통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매실에 함유된 구연산, 사과산, 호박산은 젖산을 분해시키고 축적을 막아 피로를 회복시켜준다고 한다. 또한 매실의 미네랄과 비타민 성분은 「체내의 에너지」대사를 촉진시켜 피로회복에 도움을 준다. 매실은 가공공법에 따라 구분된다. 「청매」는 단단한 상태로 신맛이 강하고 「황매」는 열매가 노오랗게 익은 상태로 향기가 좋고 「금매」는 「청매」를 증기에 쪄서 말린 것이고 「백매」는 청매를 하루 밤 소금에 절인 다음, 햇볕에 말린 것이다. 「오매」는 까마귀처럼 검은 매실로 청매를 따서 껍질을 벗겨 나무나 풀 말린 것을 태운 연기에 그을려 만든 것이다.

이렇듯 약효가 많은 매실은 원산지는 중국이고 1500년 전, 한반도에 전해졌다.

좋은 약재일수록 주의점이 많다. 매실은 상처가 없는 깨끗한 것이어야 하며 6월~7월 사이의 열리는 게 최상이고 씨가 작고 과육이 많으며 신맛이 많이 나는 게 좋다. 덜 익은 매실에는 청산배당체인 「아미그달린」이 들어 있으므로 익지 않은 생과를 날로 먹으면 중독된다. 「매실농축액」 「매실식초」가 인기가 있다. 내 고향 포천 각 마을마다 한 두 나무씩 있으나 집단 재배나 농로의 가로수로 심어 재배하면 소득작물로 적합한 과수가 아닌가? 생각되어 소개한다. 필자연락처 02-932-2434

초대 漢詩

燈火可親(등화가친)

이 창 수
포천한시사 회원

晝短宵長降雪時(주단소장강설시) 硯耕夜讀理天知(연경야독리천지)
낮은 짧고 밤이 긴 눈 내리는 겨울인데 먹을 갈고 책을 읽으니 하늘의 이치를 알겠네.

學優登仕先人訓(학우등사선인훈) 攝職從公後世師(삽직종공후세사)
학문이 넉넉해야 출세한다는 것은 선인들의 교훈이며 직첩을 갖고 공직에 종사하니 후인들은 스승으로 섬기네.

二八靑春奉美態(이팔청춘수미태) 古稀白髮貴人姿(고희백발귀인자)
이팔청춘은 몸가짐이 단정하고 고희에 백발이지만 귀인의 모습이네.

勤勤勉勉心身鍊(근근면면심신련) 燈火相親好節期(등화상친호절기)
부지런히 또 부지런히 심신을 단련하여 등화를 가까이할 좋은 계절 맞이했네.